

「슈라이엘마헬」의 百年忌 「슈라이엘마헬」과 現代(二)

田元培

□서로시의 當□한 運命이 風前燈火같은 危機에 빠져 잇슴 에도 不拘하고 슈라이엘마헬은 꾸준히 푸로시아의 終局的 勝利를 確信하고 푸로시아 勢力의 成長을 豫測하였다. 그의 祖國에 對한 굳은 사랑과 政治的 理性과 푸로테스탄的 □□은 마침내 푸로시아의 現狀□□속에 푸로시아國家의 內面的 □□와 大獨逸的 國家的 構造의 黎明을 보았다. 『날근 傷處는 더욱 버려지고 모든 治療는 다 水泡에 도라 갔다. 그러나 오죽 一條의 □□이 나에게 남아 잇는 동안 나는 決코 나의 視線을 푸로시아에서 떼지 않을 것이다. 모래 위에 슌 □□을 한번 暴風이 불기만하면 餘地없이 쓰러지는 것이다. 나는 날근 것의 沒落속에 새로운 成長을 發見한다.

.....◇.....

이와 같이 그는 푸로시아 後日의

更生에 對한 確乎 不拔한 信念을 가지고 國家 解體의 危機에 處하여 조금도 安穩을 잃지 않고 꾸준히 『플라톤』을 翻譯하고 잇었다 한다.

그러나 슈라이엘마헬의 이 信念은 단순한 信念으로만 끝이지 아니 하고, 그는 한 거름 더나가서 그의 流暢한 言辯的 天才를 武器로 나폴레온에 宣議을 布告한 獨逸民族戰線을 馳□하는 喇叭卒이 되었다. 슈라이엘마헬은 『自由스런 言論은 나폴레온에게 對한 □렬한 □□이라』고 하였다. 그리 하여 슈라이엘마헬은 一八〇八年 二月 아직 佛軍의 鐵蹄소리가 거리거리를 덜거덕거리는 어마 어마한 가운데에 그의 『脫敎集』을 公開하였다.

이제 그의 政治的 說敎의 根本 思想을 概括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國家를 爲한 活動을 基督教의 思想속에 編入하고

個人的 奴隸道德을 打破하고서 基督教의 理想主義 下에 社會的 政治的 生活을 要求하였다. 社會가 아무리 秩序없는 混沌 中에 빠져 잇더라도 世界運行的 裡面에 神性이 現在한다는것 卽 世界는 神的 理性의 實現이라는것은

슈라이엘마헬의 政治的 說敎의 根本데—마였다. 宗教家라는 것은 그의 모든 外的 生活이다. 神意識에 規定되어 있는 人間이다. 自然과 社會에 나타나는 理想的 理性的 秩序의 現實속에는 神이 活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禍福의 모든 交代는 이 神的 世界實現에 對한 功過如何에 依하여 規定되는 것이다.

.....◇.....

슈라이엘마헬은 이러한 視點에서 不幸이라는것을 自己認識의 手段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 거름 더 나가서 國家의 不幸속에 個人과 國家와의 聯結을보고 이러한 不幸가운데에서 必然的으로 國家意識이 高□되는 것을 보았다.

個人은 國家를 通해야만 眞正한 人間이 되는 것이며, 民族가운데서만 그 世界 市民的 義務를 遂行하는 것이다. 家庭生活이란 조고만 範圍內에서는 人間の 本務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人間은 祖國의 속에서만 完全히 理解할수있는 것이오. 共通한 感情, 共通한 表象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當時 獨逸民族이 받도 있는 커다란 不幸에 對한 슈라이엘마헬의 宗教的 理解다.

그리 하여 슈라이엘마헬은 푸로시아의 混亂을 收拾할 者가 푸로시아 皇帝도 아니오, 또 地方貴族도 아니오. 오로지 全 獨逸民族임을 알었다. 그에 依하면 皇帝까지도 『自己民族』을 爲하여 存在하는것 自己民族의 自由活動을 鼓吹하는것에 不過하였다.

.....◇.....

이리하여 그는 말과 붓으로 眞正한 獨逸帝國은 모든 獨逸人民의 自由스런 **運動에** 依하여 組織되는『自由스런 唯一의 獨逸』이라는 大 獨一主義의 思想을 主唱하고 自己本位인 地方貴族들을 苛酷하게 攻撃하였다.

그러나 슈라이엘마헬의 大 獨逸 帝國思想은 當時 一種의 『妄想』과 『夢遊病』이라 하여 爲政者의 嘲笑와 輕蔑을 받았 었다. 그러나 도리킬 수없는 歷史의 수레 박혀는 돌고 돌아 當時 爲政者에게 妄想과 夢遊病으로 만보이던 슈라이엘마헬의 大 獨逸 主義思想이 이제는 血과 肉을 갖춘 現實이 되었다. 우리는 슈라이엘마헬의 『妄想』이 一世紀동안을 □한 全 獨逸 民族的 實踐에 依하여 眞理로서 證明되어 있는 것을 볼뿐만 아니라 現在 獨逸民族이 가슴속에 깊이 살고 있는 것을 본다. (사진은 술라이엘마헬)